

제 3 주제

대전-당진, 공주-서천간 고속도로
개통에 따른 충남 관광전략과 과제

김 성 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
김 경 태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

대전~당진간 및 공주~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충남관광의 과제

2009. 5

김 성 진 (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)

김 경 태 (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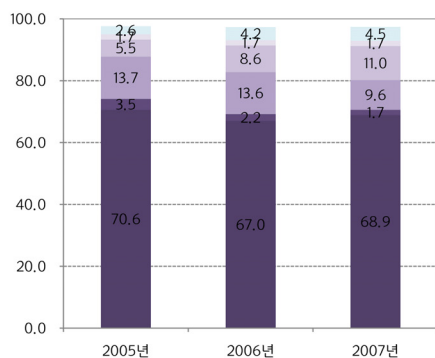
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영향 전망

- ① 방문객 총량 증가
- ② 대전·영남권 방문객 증가
- ③ 방문객 행동범위 광역화
- ④ 영남권 등 원거리 방문객의 광역화
- ⑤ 양극화
- ⑥ 체재시간 단축(당일관광 증가/숙박관광 감소)
- ⑦ 관광시설 개발 입지 증가
- ⑧ 지가상승 등 관광개발 여건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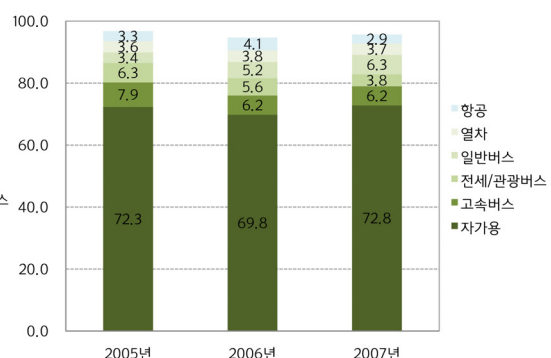
고속도로 개통의 관광영향 전망

1. 방문객 총량이 증가할 것이다.

- 관광은 접근성(Accessibility)과 자원성(Attraction)의 함수
- 당일관광과 숙박관광 시 93% 이상이 승용차와 버스 등 여행교통수단 이용(한국관광공사, 국민여행실태조사)
- **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시간 단축, 관광교통의 편리성, 쾌적성, 안전성 등이 개선되어 방문객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**



【여행교통수단-당일관광】



【여행교통수단-숙박관광】

고속도로 개통의 관광영향 전망

2. 대전, 영남권 시장에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된다.

-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이동시간 단축효과가 큰 **대전과 영남권 시장에서의 방문객 증가**, 특히 대전에서 통영, 사천 등 남해안으로 향하는 관광수요가 서해안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
 - 대전~당진간 주행거리 25.4km 감소, 주행시간 1시간 단축
 - 공주~서천간 주행거리 17.3km 감소, 주행시간 40분 단축
- 그러나 수도권 고속도로의 상습(특히, 주말) 정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수도권 시장에서의 방문객 증가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



【주말 수도권 고속도로의 정체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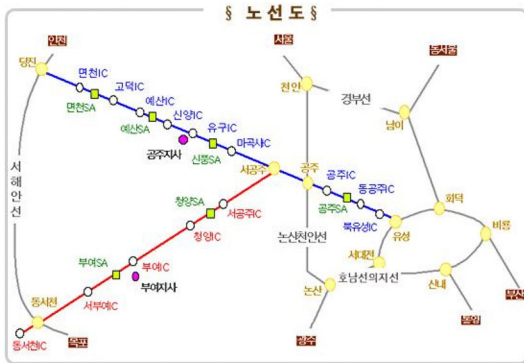


【창선 삼천포 대교】

고속도로 개통의 관광영향 전망

3. 방문객의 행동권이 광역화될 것이다.

- 관광객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여행을 추구하고, 이동성(고속도로 개통, 승용차 여행 증가, 여가시간 확대 등)이 증진되어 방문객의 행동권이 광역화될 것으로 전망
- 명승고적(공주, 부여 등)과 휴양명소(안면도 등)를 순회 탐방하는 주유형(周遊型) 관광이 증가



[대전~당진간 및 공주~서천간 고속도로 노선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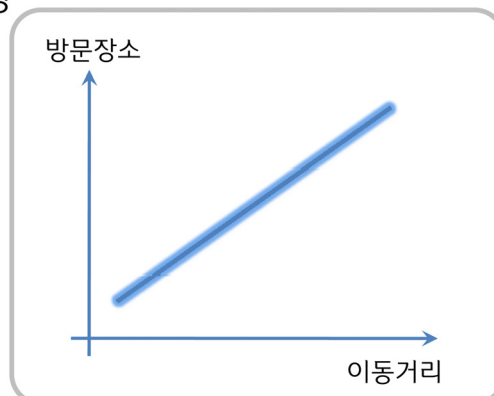


[부소산성, 신성리 갈대밭 등을 주유하는 관광 증가]

고속도로 개통의 관광영향 전망

4. 대전과 수도권 방문객의 행동권은 광역화되지 않을 것이다?

- 그러나 충남관광의 주요 시장인 대전과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의 행동권은 광역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,
- 수도권과 대전권 시장 보다는 이동거리가 큰 영남권 시장의 행동권이 광역화될 것으로 전망
- (이동거리와 관광행동 범위)
먼 곳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범위는 큰 반면(광역화), 가까운 곳에서 오는 방문객의 이동범위는 작다.



[관광객의 이동거리와 방문장소간 정(+)의 관계]

고속도로 개통의 관광영향 전망

5. 통과지역과 종점지역간, 수용태세에 의해 양극화될 것이다.

【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전후 숙박 및 음식점업체 수】

- 당진과 태안, 서천 등 종점 지역의 개통 효과는 큰 반면 공주와 부여, 청양, 예산 등 통과 지역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
- 이동성의 개선으로 방문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역간 유인력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것
- 따라서, 수용태세 정비 등 시군의 대응력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고, 지역간 방문객 수가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

* 외생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므로 해석상 유의 필요

구분	이전 3년 평균(a) ('99~'01)	이후 4년 평균(b) ('02~'05)	차이(b-a)
충남	26,261	27,968	1,707
보령시	1,835	2,059	2,24
서산시	2,164	2,182	18
서천군	960	888	-72
홍성군	1,335	1,274	-61
당진군	1,619	1,644	22
전북	23,845	22,984	-861
군산시	3,855	3,700	-155
김제시	1,029	998	-31
고창군	788	787	-1
부안군	1,052	1,034	-18
전남	28,403	27,647	-756
목포시	4,072	4,428	356
무안군	700	644	-56
함평군	390	347	-43
영광군	872	719	-153

고속도로 개통의 관광영향 전망

6. 체재시간이 단축될 것이다.

- 고속도로 개통(단위시간당 이동거리 확대)으로 접근성(接近性)도 좋아지지만, 동시에 지역 이탈성(離脫性)도 증가
- 최근 ‘안·근·단(安·近·短: 싸고 가깝고 짧게 여행)’ 경향이 증가
- 당일관광 증가와 숙박관광 감소가 예상되고,
- 또한, A 지역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숙박은 B 지역에서 하는 현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



【안면도 펜션】



【한화콘도-대전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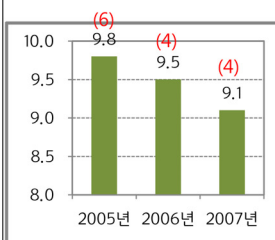
고속도로 개통과 충남관광의 과제

- ① 충남관광의 파이(π)를 키워라
- ② '충남다움' 창출
- ③ 관광시스템 정비
- ④ 지역간 협력
- ⑤ 새로운 충남 관광축 구축
- ⑥ 정주기반 관광자원 개발
- ⑦ 홍보마케팅 차별화
- ⑧ 지연산업과 융합
- ⑨ 어메니티 보전/창출
- ⑩ 인재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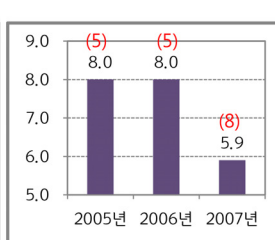
고속도로 개통과 충남관광의 과제

1. 충남관광의 파이(π)를 키워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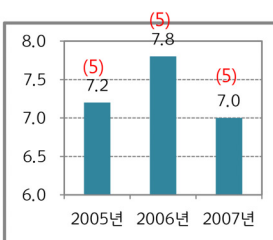
- 숙박 및 당일관광 방문지역 중 충남의 점유율이 감소 추세, 충남의 향후 희망하는 방문지역 비율도 1.3% 정도로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
- 2007년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조정, 평가 시 계획의 타당성 및 실천가능성이 하위권 평가
-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, 安·近·短 여행 트렌드 변화 등 충남관광의 여건 변화, 비전과 목표 재설정, 집행체계 구축 등 충남관광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종합적 전략 수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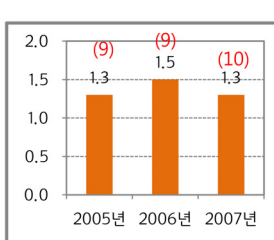
【숙박관광 방문지역 비율】



【당일관광 방문지역 비율】



【기억에 남는 방문지역 비율】



【향후 방문 희망지역 비율】

【충남관광의 몇 가지 현황】

()안은 순위, 단위: %
자료: 한국관광공사, 국민여행실태조사

고속도로 개통과 충남관광의 과제

4. 지역간 협력하여 연계하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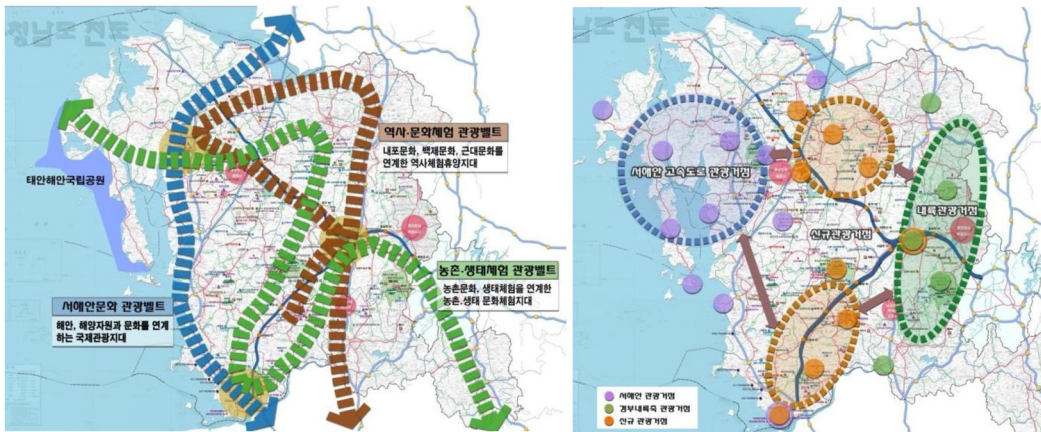
- **(효과)** 방문객의 이동성 증가 및 행동권 광역화, 개별 지역에 분산된 관광자원을 ‘합쳐 보면’ 새로운 잠재력 가시화, 개별 시군의 역량한계 극복, 공동 생산 통한 비용 절감, 중복투자 방지 통한 효율성을 제고 등
- **(전제조건)** “우리 지역 혼자 다할 수 있다”는 협력기피 관행 타파, “우리 지역 성공은 모든 지역의 성공으로부터 온다”는 의식 혁신, 선도 성공사례 창출로 공동의 노력으로 공동의 결실을 함께 맛보는 경험 공유
- **지역간 관광협력의 4대 방안**
 - ① **이미지 연계:** 역사와 문화, 자연환경에 기초한 통합 이미지 창출
 - ② **장소 연계:** 테마와 계절별 관광루트 조성, 핵심 및 보완 자원 연계
 - ③ **시장 연계:** 수요확보를 위한 동반 마케팅과 축제, 이벤트의 교류
 - ④ **인적 연계:** 사업실행을 위한 인적 연계, 정보공유, 공동학습 등

고속도로 개통과 충남관광의 과제

5. 새로운 관광축을 구축하라.

- 현재 충남의 관광축은 서해안 관광축과 백제문화 관광축이 이원화되어 있고, 고속도로 개통은 기존 관광축의 상호 연계 가능성을 의미
 - 당진-대전간 : (서해안 관광축) + 덕산스파 위락관광 ~ 내포 역사문화관광 ~ 예당 생태체험관광 ~ 마곡사 역사문화관광 + (백제문화 관광축)
 - 서천-공주간 : (백제문화 관광축) + 금강 생태문화관광 ~ 칠갑산·지천 생태체험관광 ~ 강경 근대역사문화관광 + (서해안 관광축)
- Hub & Spoke 전략에 따라 기존 관광지 거점화 및 주변 관광지 연계 강화
 - 서해안 관광객을 내륙으로 유인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
 - SIT관광에 대응한 농산어촌체험관광의 특성화

고속도로 개통과 충남관광의 과제



고속도로 개통과 충남관광의 과제

6. 지역사회를 개발하라.

- (충남의 관광지 개발사업 평가) 관광지의 특성화 개발 미흡, 개발 추진력 저조, 관광지간 중복 및 획일적 개발, 민간투자 저조 등
-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은 상호 수렴하는 것,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은 방문객을 고려한 개발이고, 방문객을 위한 관광개발은 주민을 위한 개발이어야 한다.
- ‘선 부지조성, 후 민간투자유치’의 전통적 방식에 대한 재고 필요, **개발가용 용지 확보, 인허가 등 규제완화·세제감면 방안 마련 후 민간부문이 입지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**, 공공부문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**지역사회와 통합적 개발**



【충남 지정관광지 현황】



【지역사회 개발과 관광개발의 분리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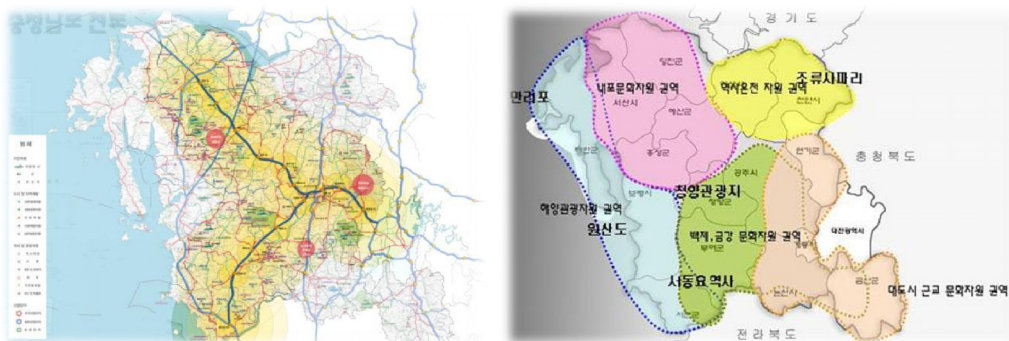


【제3섹터 개발: 태백 O2리조트】

고속도로 개통과 충남관광의 과제

7. 시장별로 홍보마케팅을 차별화하라.

-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방문객의 이동범위 광역화, 그러나 이동거리에 따라 행동권이 차이
- **대전 및 수도권과 영호남권 등 시장에 따라 홍보마케팅의 내용과 수단 차별화**
 - 대전 및 수도권의 충남 방문 경험자에 대해서는 충남관광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개최하여 재방문 유도
 - 영·호남권 등 처음 방문객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합 이미지를 제공



【대전~당진간 및 공주~서천간 고속도로 주변 관광자원 분포】 【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상의 관광권】

고속도로 개통과 충남관광의 과제

8. 관광과 지연산업을 융합하라.

-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접근성이 개선되더라도, 당일관광 증가와 숙박관광 감소 등이 예상되고, 과거와 같은 개발관행이 지속될 경우 방문객이 증가하더라도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는 딜레마 발생
- **관광과 지역(문화),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이 융합된 관광생태계를 구축**해야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. 관광과 지역, 관광산업과 지역산업 각각의 '0.5차 더하기'를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

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가장 풍부한 어장(漁場)이 형성된다.

사례: 우키하(浮羽)

농업과 관광의 융합: 미찌노에키(道の驛), 다락논(棚田) 보전, 관광상품(쌀+지하수) 개발



